

<p>사할린주 사회정치신문</p> <hr/> <p>Общественно-политическая газе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p>		<p>2022년 7월 29일(금) (윤력 7월 1일) Пятница 29 июля 2022г. № 29 (11996) 1949년 6월 1일 창간 ----- Цена свободная</p>
---	--	---



▲ 지난 23일(토) 아나와에서 사할린 주한인협회와 사할린주 사회원의 공동주최로 제5회 <한 가정에서> 축제가 진행되었다. (사진; 사할린주 사회원 제공)

단신

사할린주지사, 쿠릴스크 구역 방문

지난 27일(수) 알렉세이 리마렌코 주지사가 이투루프섬을 방문했다. 그는 레이도위 마을에 준공된 학교와 키토위에 마을에 건설 중인 주거 시설 및 조경 시설들을 둘러보았다.

저녁에는 문화회관에서 쿠릴스크 구역 주민들과 간담회가 열린 가운데 많은 문제가 제기되었다. 또한 이 자리에서 항공과 해상 운송에 대한 문제도 논의되었다.

그리고 주민들과 만나기 전에, 16시부터 17시까지 주정부 및 구역 정부 관계자들이 시민들을 만나 개인적으로 접대했다.

사할린의 구조대원들 축하와 포상을 받아

1998년 7월 28일, 러시아 비상사태부에서 수색및구조 부서가 생겼다.

지난 28일(목) 러시아 비상사태부 사할린주관리국 이고리 야무코브 국장은 '폴라코브' 사할린 수색 구조대를 찾아 축하 행사를 가졌다. 그는 구조와 공로를 세운 사람들에게 훈장, 표창장을 수여하고 축하 인사를 전했다.

유즈노사할린스크, 지속 가능한 개발 부문에서 상위 15개 도시에 진입

유즈노사할린스크는 ESG 평가 결과에 따라 지속가능한 도시 개발 15위 권에 진입했다. 이 조사는 국가 평가 기관 "Expert RA"에 의해 진행되었다.

조사 결과는 환경, 사회, 품질경영지표(거버넌스) 등 3개 분야에 분포한 22개 지표를 대상으로 산출되었다.

유즈노사할린스크 외에 벨고로드, 블고그라드, 고르노알타이스크, 예카테린부르그, 이쉴스크, 케메로워, 크라스노고르스크, 크라스노다르, 심페로폴, 스타브로폴, 탐보프, 툴라, 한티만시스크, 체복사리 등이 ESG 시장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시장실 보도부가 전했다.

제1부지사, 티몹스코예 방문

세르게이 바이다코브 제1부지사가 7월 29일과 30일 이틀간 티몹스코예 구역을 방문해 사회복지시설, 주택공공시설, 교육시설, 보건시설 등을 시찰한후 소셜매장을 점검 하고 승마대회에 참관할 것이라고 주정부 보도국에서 전했다.

그리고 7월 29일 17시에 그는 주민들과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사할린주 기업들, 주정부에서 에너지 절약 문제 논의

7월 28일(목) '사할린주 통합 에너지 절약 추진 포럼이 주정부에서 열렸다. 이 행사의 주요 목표는 에너지 서비스 업체들을 유치하고 이들이 사할린과 쿠릴 열도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어 예산분야, 자원 공급 및 기타 조직들과의 상호작용을 도우는 것이다. 이번 포럼은 에너지 기업들과 정부 대표들이 모이는 전문 비즈니스 행사장이 되었다.

"오늘날 러시아 경제의 에너지 강도를 줄이는 것은 중요한 국가 과제이다. 에너지 절약 분야에서 진행 중인 프로젝트 활동은 에너지 효율을 향상시킬 것이다. 특히 사할린 지역에서 취한 조치들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데 기여하는 것이다"라고 올레그 포포브 사할린 주정부 부총재가 강조했다.

"우리의 임무는 에너지 자원의 소비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사할린 지역에서 종합적인 에너지 절약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것이다. 에너지 서비스 기업의 잠재적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주택 및 공공서비스의 에너지 분야에 투자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제시하고 싶다"라고 나탈리아 쿠프리나 사할린주 공공주택 경리부 장관이 말했다.

그리고 이 포럼에서 규제 체계와 에너지 절약 및 에너지 효율 분야의 우수사례, 에너지 서비스업종내 근무 기회와 혜택 등에 대한 전문가들의 발표가 있었다.

사할린주 건설부 장관, 우글레고르스크 구역 공사 현장 시찰

알렉세이 플레와티흐 사할린주 건설부 장관이 우글레고르스크 구역 행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새로 건설중인 사흐초르스크의 아파트단지과 400명의 학생을 수용할 학교, 문화 개발 센터 등의 건설 현장을 시찰하고 공사진행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장관은 그 현장에서 계약자 및 건설업자들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건설부 장관은 공사현장 방문 후 우글레고르스크 구역의 시민들과 함께

건설 및 재건축 문제를 주제로 간담회를 가졌다. 주민들은 이미 지어진 주택의 품질과 일부 시공상의 결함 또는 내 집 마련 가능성에 관한 우려를 전했다.

주택 건설 사업은 앞으로도 몇 년 동안 지속될 것이다. 이에 주 특별프로그램의 일환으로 2026년까지 우글레고르스크 구역에는 2017년 1월 1일 이후 노화된 주택으로 지정된 목록에 따라 3600명에게 9만㎡의 새 아파트를 제공할 계획이다.

블라디보스토크, 제7회 <아시아의 아이들> 하계국제스포츠대회 열려

7월 27일부터 8월 8일까지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개최되는 제7회 국제 스포츠 경기 대회 "아시아의 아이들" 개막식이 지난 28일(목) 진행되었다. 이번 대회에는 13세~16세에 해당하는 선수 약 1500명이 참가한다. 이들은 러시아 극동, 시베리아, 우랄 연방관구, 모스크바, 연해주, 바쉬코르토스탄 공화국, 사하(야쿠치아), 타타르스탄을 대표하고 그외 아르메니아, 아프가니스탄, 인도, 요르단, 이란,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레바논, 몽골, 파키스탄, 태국,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12개국의 대표 선수들이 참가한다. 이번 경기에서 치뤄지는 스포츠 종목은 배드민턴, 3대 3 농구, 복싱, 쿠라쉬 레슬링, 브레이크댄스, 유도, 육상, 종합 격투기, 미니축구, 탁구, 수영, 비치발리볼, 사격, 삼보, 레슬링, 양궁, 태권도, 합사카이, 리듬체조 등 총 19개종목이며 선수들은 273개의 메달을 두고 경쟁할 예정이다.

"아시아의 아이들"대회에 참가하는 사할린 선수는 16명이다. 사할린 대표선수들은 육상, 유도, 복싱, 태권도, 댄스 스포츠(브레이크 댄스), 사격 그리고 농구에 참가한다.

사할린 출신 선수 소피야 나디르쉬나는 성화 봉송과 제 7회 국제 스포츠 게임 "아시아의 아이들"의 개막식에 초대받았다.

소피야 나디르쉬나는 러시아 국제 체육 명인이자 스노보드 세계 챔피언 및 2022년 베이징 동계 올림픽(제24회) 참가자이다. 그는 2019년 2월 8일부터 17일까지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열린 제1회 "아시아의 아이들"동계국제대회에서 우승한 바 있다.

새고려신문

2022년 하반기 신문주문

존경하는 독자 여러분! 2022년 하반기 새고려신문 구독신청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앞으로 사할린 한민족지를 애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1개월 구독료는 96루블리 92코페이카입니다. 신문 인덱스는 ПП575입니다. 신문은 주내 모든 우체국에서 구독할 수 있습니다. (편집부)

신임 코르사코브 한인회장 이 블라디미르 인터뷰 "구 세대의 연륜과 신 세대의 활력으로 더 많은 사업을 해나갈 것입니다"

올해 6월 25일 열린 코르사코브 한인회 선거회의에서 이 블라디미르 엔주노위츠(1966년생)가 만장일치로 코르사코브 한인회 회장에 선출되었다. 이 회장은 2005년 코르사코브 한인디아스포라 구역단체 설립 당시 임원 중 한 사람이었다. 그 시기 그는 청년부를 맡아 5년간 적극적인 활동을 펼쳤었다. 그러다 여러 과정을 거쳐 사회사업을 하게 되었는데, 20-40대 코르사코브 동포들이 한민족의 문화, 전통, 역사와 사회에 관심이 많아져 함께 활동하고 싶은 마음에 다시 한인사회로 돌아오게 되었다. 필자는 이 회장과는 2005년 처음 인사를 나누었는데, 듣직하고 친절하고 리더십이 강한 인상을 받았었다. 10여년 만에 다시 만난 이 회장은 그때와 변함없는 인상을 주었다.



코르사코브에서 태어나 평생 이곳에서 살아온 그는 공부도 주로 원격으로 했다. 15세에 일찍 어머니를 여읜 블라디미르는 더더욱 아버지와 누나 둘의 소중함을 느끼며 살았다. 다섯 살까지는 집에서 조선말만 하다가, 큰 누나가 러시아어가 부족해 학교 성적이 떨어지자, 아버지는 그때부터 집에서 러시아말을 쓰게 했다. 그런 이유로 이 회장은 제대로 한국어를 하지 못한다.

1948년, 아버지는 당시 18세의 나이로 북조선에서 사할린으로 왔다. 파견 노무자로 온 것이 아니라 공부하기 위해서 온 것이다. 그러나 언어도 통하지 않고, 갖고 온 돈은 다 쓰게 돼 닥치는 대로 일을 해야 했

다. 막노동이 무엇인지 몰랐던 아버지가 어업도 하고 목장일도 하게 됐는데, 목장에서는 꽤 오래 일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어느 정도 교육도 받았고 두뇌도 뛰어나 아버지는 목장에서 대장이 되기도 했었다. 은퇴 후에는 서예를 좋아해 한자 쓰기를 즐기셨는데, 때문에 집안에 늘 묵향이 가득했었다고 한다. 아버지는 6.25전에 남한으로 갔던 두 형들과도 만날 수 있었다. 이 회장은 자신에게는 큰 아버지가 되는 두 분을 만났던 순간을 잊지 못한다. 2004년 돌아가시기 전까지 이 회장이 아버지를 모셨다.

«19년전에 러시아어인과 재혼했는데 아내가 한인 여자처럼 명절상, 제사 상 다 차립니다. 아버지를 모시는 동안 참 잘 보살폈어요. 목욕도 시키고 마사지도 해주었는데, 아버지는 부끄러워 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딸들을 더 부끄러워 하는 것 같았어요»라고 이 회장은 말한다.

아내와의 사이에 자녀는 없지만

이해심이 많은 아내가 고맙기만 하다. 대화도 잘 나누고 지루하지도 않아 서로 잘 맞는 인연이라 생각한다. 언지시 이번에 한인회장이 된 것에 대해 아내가 뭐라 했는지 묻자, 그다지 좋아하지 않았다고 한다. 회장직이 얼마나 책임이 많고 한인회 일이 얼마나 많은 시간과 신경을 써야 하는지 잘 이해하기 때문이다.

이 회장은 규모가 그리 크지 않은 개인 건설 사업을 하고 있다. 쇼핑센터도 건설하고, 개건작업, 건물 보수작업 등 주문에 따라 작업량과 이득이 다르다. 팬데믹 전만 해도 사업이 꽤 괜찮았는데 팬데믹 후, 건자재가 비싸지고 물류비가 올라가고, 운송비용도 인상되다 보니, 많은 업체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의 전공은 건설도, 경영도 아니다. 학교 졸업 후 코르사코브에서는 제법 큰 기관인 '코르사코브 대양수산기지'에 프레이즈공으로 취직했었다. 동시에 하바롭스크의 기계전문 학교에 입학해 원격으로 공부했다. 전문대를 졸업하고나서 마스터(십장)로 활약했는데 경제 위기가 닥친 1992년, 개인사업으로 돌아섰다. 당시 수산사업을 시작했는데 좋은 파트너가 생겨 사업을 잘 할 수 있었다. 그러다 1997년 IMF가 터져 회사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당시 투자를 많이 해 빚을 감당하기 어려워 결국 사업을 접을 수밖에 없었다. 그 후로 건설에 전념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2000년 초에는 정치에 관심이 생겨 극동기술대학교에서 국가자치관리를 전공해 2006년에 졸업했다. 그러나 당 회원이 돼야만 출세할 수 있다는 생각에 공무원의 길은 포기했다.

감당해야 할 일은 많아졌지만 누구를 위해 뭔가 할 수 있다는 것은 삶에 활력을 준다. 이 블라디미르 회장은 "우리 한인회 임원들은 회장 선거전과 그대리고 새 활동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더 많아진 것뿐이죠"라고 한다. 그는 이태출(이태준) 전 회장, 노인담당 박창순 회장의 한인사회에서의 공로를 높이 사면서 특히 박창순 노인회장이 한글학교 수업도 맡고, 한인회 소속 예술단도 잘 지도하고, 노인들과의 소통도 잘 하시는 분이라며 존경을 표했다.

이 회장에 따르면 코르사코브 한인사회를 활성화 하려는 젊은이들이 많아져 한인회의 화력이 뜨거워졌다고 한다. 한인회는 일주일에 한번 주민들을 접대하는 날이 정해져 있다. 이 회장에 따르면 여러 기획을 하는 한인회 활동가들은 일주일에 두세 번 만나는 것은 기본이고 행사를 준비하면 거의 매일 그들과 만나 다시피 한다. 이전 세대와 다음 세대가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은 한인회의 큰 장점이다. 그동안 쌓인 경험과 젊은이들의 새로운 아이디어가 있기에 큰 그림을 그릴 수 있고 그들의 에너지가 좋은 순환을 가져오는 것 같다.

지난 6월 이 블라디미르가 코르사코브 한인회장으로 선출된 이후 코르사코브 한인회에서는 여러 행사

를 추진하거나 참여했다. 망향의 언덕에서 망향의 탐(사할린동포위령조각탑) 현장 청소, 도시의 청년의 날 행사에서 한인회 소속 '미니말' 타악기 팀 공연, 아니와에서 진행된 <한 가정에서> 축제에 코르사코브 한인회 소속 예술단들의 출연 등이 이 회장 취임 이후 진행되었다.

이 회장은 코르사코브 한인회의 계획을 다 말할 수는 없지만, 뭘 하든 제대로 하고 싶다고 한다. 현재 코르사코브 한인회의 가장 큰 기획인 광복절 축제는, 8월 13일로 날짜가 정해졌다. 도시에서 약 10년만에 진행될 대중 광복절축제가 어떻게 펼쳐질지 기대가 된다.

광복절 축제 전에 한인회의 또다른 프로젝트가 있다. 7월 29일 본지 발행일에 코르사코브에서 상업인들의 날 행사 일환으로 제1회 '한국을 맛보아라'라는 타이틀로 한민족문화 체험축제를 추진한다. 축제 프로그램에는 요리교실, 시식대회, 한국 물품 박람회, 한민족공예, 노래교실 등이 준비되어 있다.

현재 코르사코브 한인회 활동은 본회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 모두 소개되고 있다. 주민들과 청년들에게 한인회 사업을 알리고 참여하게 하는 좋은 방법인 것 같다.

아내, 친구들과 함께 여가를 즐기는 것을 좋아하는 이 블라디미르. 한때 즐겼던 낚시와 사냥을 잠시 미루고, 한인회장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할 것이다.

(배순신 기자)

이 모 저 모

100명이 넘는 선수들, 철인 3종 경기에 참가

지난 23일 아니와 구역에서 철인 3종 경기 "아니와 스프린트"대회가 열린 가운데 선수 110여명이 참가했다.

스프린트 거리의 철인 3종 경기는 수영 750m, 자전거 20km, 달리기 5km를 극복해내야 했으며, 18세에서 65세 이하의 연령범주에서 개인 또는 20개 팀별 릴레이 경기의 메달을 놓고 서로 경쟁을 벌였다.

이 경기에서 참가자들 중 로만 트루베츠코이가 선두로 1시간 4분 43초로 모든 코스를 완주했다.

엘레나 켈레즈냐크는 여성 선수들 중에서 가장 좋은 성적을 거두었다.

혼성팀 릴레이 경기에서는 'Never stop'팀이 승리를 차지했다. '겨울 스포츠 종목 팀'은 여자 계주 경기에서 최고 성적을 냈고, 남성 팀 경기에서는 '에텔웨이스' 팀의 참가자들이 가장 좋은 성적을 냈다고 주스포츠부 보도부에서 전했다.

Boleee 100 스포츠맨을 받아들인 참여에 트리아톤

23 июля Анивском районе состоялась соревнования по триатлону "Анива спринт", в котором участвовало более 110 спортсменов.

Триатлон на спринтерской дистанции "Анива спринт" состоит из трех этапов: плавательного, велосипедного и бегового. Участникам предстояло преодолеть 750 м в плыв в открытом море, 20 км на велосипеде и 5 км бегом.

Участникам предстояло сразиться в индивидуальной гонке или командной эстафете в своих возрастных категориях от 18 до 65+. За медали эстафеты боролись 20 команд.

По итогам стартов лидером стал Роман Трубецкой,

он преодолел дистанцию с результатом 1:04:43.

Лучший результат среди женщин показала Елена Железняк.

Эстафетная гонка принесла победу смешанной команде Never stop. "Команда зимних видов спорта" стала сильнейшей в эстафете среди женщин, а среди мужчин лучший результат показали участники из "Эдельвейс", сообщает пресс-служба областного минспорта.

네벨스크, 큰바다사자의 날 기념

7월 23일은 네벨스크 구역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기념일중의 하나인 '큰바다사자의 날'이다.

바다사자는 네벨스크 상징중 하나로 방파제에서 국기와 국장은 물론이고 실제 모습을 볼 수 있다. 큰바다사자의 날 기념행사는 전통적으로 베레고와야 거리를 따라 조성된 레크리에이션 공원에서 진행되었다. 이 기념일은 비영리 파트너단체 "브리간티나" 산하 바다사자 서식지 보호를 위한 공공위원회 위원들의 참여로 개최된다.

이날 기념행사는 어린이 놀이기구와 창작마당으로 시작하여 청소년부터 노인까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마스터클래스, 퀴즈대회, 전시 등이 진행되었다. 어린이들을 위한 연극 공연으로 "필요하지 않는 친구는 없다"가 준비되었다. 그리고 10대들을 위해서는 팀 퀘스트 "해적의 보물"이 흥미롭게 준비되었다.

이 행사의 전통에 따라 매년 네벨스크 지역에서는 바다사자의 날 전야제로 '바다사자 - 네벨스크 지역의 주민'이라는 제목으로 그림 및 공예품 경시대회가 열렸다.

행사에서 "바다사자는 우리 도시의 상징"이라는 플래시몹으로 계속 진행되었고, 행사에 참석한 사람들은 돌로 만든 도시의 상징물 '큰 바다 사자'를 이벤트에 게시했다

저녁에는 유즈노사할린스크, 코르사코브, 네벨스크 팀들이 네벨스크 주민들과 손님들을 위해 "7 Winds"라는 록-콘서

트를 열었다고 네벨스크 시 행정부 텔레그램 채널이 전했다.

В Невельске отметили День сивуча

23 июля в Невельском районе отмечается один из самых знаковых для района праздников — День сивуча.

Сивуч — один из символов Невельска, которого отродно видеть не только на флаге, гербе, но и в живую — на брекватере.

В рекреационном парке по улице Береговой прошло традиционное празднование Дня сивуча. Праздник проводится при участии инициаторов его создания — членов общественного совета по охране лежбища сивучей при некоммерческом партнерстве "Бригантина".

В этот день празднование началось с детских аттракционов и творческих площадок, где каждый от мала до велика мог принять участие в мастер-классах, викторинах и выставках. Для детей было подготовлено театрализованное представление "Лишних друзей не бывает". А подростков ждал увлекательный командный квест "Сокровища пиратов".

По традиции каждый год в канун празднования Дня сивуча в Невельском районе проводится районный конкурс рисунков и работ декоративно-прикладного творчества "Сивуч — житель Невельского района".

Продолжилось мероприятие флешмобом "Сивуч — символ нашего города". Присутствующие на мероприятии выложили из камней символ города — большого сивуча.

Вечером невеличан и гостей города ждал рок-концерт "Семь ветров" с участием групп из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Корсакова и Невельска, сообщает телеграм-канал невеличской администрации.

프로그램 "온라인 상태" - 사할린 어머니들의 성공을 돕는다

사할린 주 일반 과학 도서관을 기반으로 한 프로젝트 "성공한 엄마"가 운영된다. 이는 노동시장에서 워킹맘의 경쟁력을 높이고, 그역량을 확대하기 위함이다. 이 기획은 "온라인 상태" 자선 프로그램의 일부로 진행되고 있다.

(8면에 계속)

아니와, <한 가정에서>축제 진행

지난 23일 (토) 아니와에서 사할린 주 한인협회가 사할린주 사회원의 공동주최로 제5회 <한 가정에서>축제가 진행되었다. 행사의 주요 목적은 사할린에 거주하는 모든 민족들을 단합하는데 있다.



이날 펼쳐진 공연에는 사할린 한인문화센터 소속 '하늘'타악기팀·'아리랑'무용단, 유즈노사할린스크 시 '로지나'문화회관 예술단, 코르사코브 한인회 예술단, 아니와 구역 트로이츠코예 마을회관 예술단, '바이칼'사할린주 부랴트 연합회의 아티스트, '월라카자크' 민요양상블을 비롯 많은 공연단이 참가하여 멋진 무대를 선보였다.



아니와 시장 스웨틀라나 스웨츠는 축제 참가자들이 사할린주의 민족문화의 다양성을 소개하고 우리 차세대에 문화와 전통을 알리기 위해 사할린주에 거주하는 민족간의 우호와 단결을 강화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미션이라고 강조했다.



행사에 참석한 사할린주한인협회 박순욱 회장과 사할린한국교육원 이병일 원장은 모든 관객들을 따뜻이 맞이했다.

박순욱 회장은 <한 가정에서>축제는 사할린에서 처음으로 2017년에 개최되었는데 그 당시 한민족문화를 소개하는 축제를 계기로, 여러 지방에서 축제 규모가 점점 커져 지금은 한민족문화뿐만 아니라 여러 민족 문화를 소개하는 민족간의 축제가 되었다고 마음 뿌듯해 했다.

그리고 이 축제에 많은 협조를 해준 스웨틀라나 스웨츠 아니와 시장과 이완도 아니와 한인회장에게 사할린주 사회원 감사장을 전달했다.

<한 가정에서> 축제에는 다양한 인터랙티브 행사장이 펼쳐진 가운데 각종 전시회와 한민족 공예 활동교실, 민속전통놀이 및 씨름대회가 열렸고 이 축제를 찾아온 아니와 시민들은 매우 만족해 했다.

사할린주한인협회는 <한 가정에서>의 축제를 다른 지방에서도 개최할 계획이며 오는 30일(토) 마카로브에서 <우리는 함께> 축제에도 한민족문화를 소개하기 위한 공연과 스포츠대회를 준비중이라고 전했다.

(본사 기자)
(사진: 사할린주 사회원 제공)

코로나 소강상태를 보이던 사할린, 확진자 다시 증가

사할린 주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환자가 다시 증가하기 시작했다. 사할린주 감염병 총 전문가의 옥사나 솔로니나에 따르면, 비교적 평온한 기간이 지나고 새로운 확진자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지난 일주일 동안 신규 감염 건수가 30여건 정도 등록되었는데 최근 6개월간 이렇게 많은 감염자가 일어나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나 중증 환자는 거의 없고 주로 입원할 필요가 없는 경미한

질병 사례라고 한다. 주 보건부에 따르면 사할린뿐만 아니라 러시아를 비롯, 전 세계에서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사할린 의료진은 현 상황을 면밀히 지켜보고 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8월 말이나 9월 초에 코로나바이러스의 새로운 유행이 사할린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 시기는 호흡기 질환 환자가 늘어나는 데다가 많은 사람들이 휴양지에서 휴가를 보

내고 사할린과 쿠릴열도로 돌아오는 시기이기도 하다. 이는 코로나 확진자가 증가할 수 있는 주요 원인이 될 수도 있다. 그리고 코로나 뿐만 아니라 독감도 다시 유행할 수 있다. "인테르팍스"는 2020~2021년에 독감이 중단된 이후 본격적인 인플루엔자 순환이 재개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현재 러시아에는 하루 6,000명 이상의 코로나19 감염자가 발생한다.

재외동포재단, '2022년 CIS 지역 한국어교사 온라인 연수' 개최

러시아, 카자흐스탄 등 고려인 한국어 교사 및 현지인 교사 5개국 54명 참가
7월 25일부터 8월 29일까지 5주간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진행

재외동포재단(이사장 김성곤)은 CIS지역 한국어 교사의 교육 역량 강화를 위해 7월 25일부터 5주간 'CIS지역 한국어 교사 온라인 연수'를 시행한다.

이번 연수에는 러시아·카자흐스탄·우즈베키스탄 등 5개국 54명의 한글학교 교사 및 현지 학교 한국어 교사가 참가한다. 특히, 올해는 한류 확산 등 현지 한국어 교육 열기에 부응하여 연수 인원을 대폭 늘리는 한편 연수 대상도 기존 고려인 교사 중심에서 현지인 교사로 확대하였다.

참가자들은 25일 온라인 개회식을 시작으로 5주 동안 수준별 맞춤형 한국어 수업과 비대면 한국 역사·문화 체험, 교육 실습, 친교의 시간 등을 갖는다. 또한, 연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모든 프로그램은 참가자의 사전 요구를 반영하여 기획하였으며, 한국어 강의는 모두 실시간으로 진행된다.

김성곤 이사장은 "참가자들이 이번 연수를 통해 고려인 동포사회와 현지 사회에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올바르게 전파할 수 있는 전문 교육자가 되기를 바란다"며, "재단은 앞으로도 CIS 지역 동포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차세대 교사육성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재단은 지난 2000년부터 'CIS 지역 한국어 교사 초청 연수'를 시행해 왔으며, 지난해부터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온라인 연수로 전환하여 시행하고 있다. 한편, 올해 연수는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주관한다.

재단은 지난 2000년부터 'CIS 지역 한국어 교사 초청 연수'를 시행해 왔으며, 지난해부터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온라인 연수로 전환하여 시행하고 있다. 한편, 올해 연수는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주관한다.

(재외동포재단 제공)

[인터뷰] 김상열 한국이민사박물관 관장 "이민자 기억과 포용이 한국이민사 보존 하는 일"

어린학생 프로그램 관심 각별
'120년 이민사전시회' 계획 중
한인사회 갈 방향 보여줄 예정

"오늘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이민자들의 삶과 모국 공헌을 어린학생들이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김상열 한국이민사박물관장은 어린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있다.

대한민국의 발전은 국내 노력 뿐 아니라 재외동포들의 모국을 향한 애국심이 발판이 됐기 때문이다. 올해의 경우 유아를 대상으로 하와이 초기 이민자 '함해나 할머니의 이야기'를 선보였다.

애니메이션을 통해 이민 초기 이야기를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 '포화로 가는길'을 운영, 하와이 이민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있다.

"재외동포들의 모국에 대한 공헌이 없었다면 현재 대한민국 모습은 미래일 수도 있어요. 학생들이 한국이민사교육을 통해 한민족으로서의 자긍심과 정체성을 함께 지켜나갔으면 합니다."

2008년 설립된 박물관은 사실 끊임없이 몸부림치고 있다. 하와이 이민 100주년을 기념해 출발했지만 이를 넘어 여러 국가에서 활동 중인 재외동포들로 그 영역을 넓히려 인간힘을 쓰고 있는 것이다. 아울러 재외동포재단과 협력해 다양한 자료를 수집하고 보존하는 한편 이민 역사에 대한 연구에 힘을 쏟고 있다.

"개관까지는 각 지역 재외동포들의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당시 수집된 자료들 대부분은 하와이를 중심으로 한 미주지역, 멕시코·쿠바 등 중남미 지역 그리고 브라질 중심의 남미지역 자료가 많았죠. 그러나 이후에는 중국, 일본, 러시아와 CIS지역, 독일 노동이민 그리고 입양 역사 자료 등을 수집했습니다. 아프리카를 제외한 지역의 자료들을 단편적으로나마 조사하고 수집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 관장은 향후 이민역사와 함께 한인사회의 현재를 기록할 수 있는 자료 조사 및 수집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그는 여전히 인천은 디아스포라의 도시라고 이야기 한다. "인천은 유입이민의 경우 논현동 등 5개 지역에 1000여명에 달하는 사할린 영주귀국자들이 단일 도시로는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고 연수구 함박마을에는 9500여명에 달하는 고려인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또 인천시가 운영 중인 글로벌시티에는 세계 각지에서 이민생활 하시던 동포들이 다시 모국으로 돌아와 생활하고 계시죠. 진출, 유입 이민이 교차하는 인천은 디아스포라 도시입니다."

김 관장은 포용력을 강조하고 있다. "우리 국민은 한국으로 들어오는 재외동포들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생각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포용력이 너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런 이유로 어린학생들에게 한국이민사를 가르치는 것은 중요합니다. 재외동포들의 모국에 대한 공헌을 잊지 않고 공유하면서 폭넓고 따뜻하게 포용하는 것이 바로 한국이민사를 보존하는 일입니다."

한편 올해 하와이 출발 이민 120주년을 맞아 다양한 행사가 열린다. 오는 10월 세계 한인회장대회와 함께 재외동포재단이 코리안 페스티벌을 개최하게 된다. 또 인천시예술단이 하와이에서 공연을 통해 동포들을 위로하게 된다.

한국이민사박물관은 120년 이민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전시회를 계획 중이다. 긴 시간 동안 우리 민족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한인사회가 현재를 어떻게 살고 있는지, 한인사회의 미래는 어떤방향으로 갈지 등을 사진 자료를 중심으로 보여줄 예정이다.

(인천일보/이은경 기자)

О диаспоре, и не только

В Партизанске прошли мероприятия, посвященные Гражданской войне

Автопробег, посвященный 100-летию окончания Гражданской войны на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стартовал 22 июля с центральной площади Партизанска. В течение трех дней участники автопробега "Этих дней не смолкнет слава" проехали по территории Партизанского городского округа и Партизанского муниципального района - памятным местам Сучанского рудника, побывали в сёлах: Казанка, Мельники, Хмельницкое, Серебряное, Бровничи, Фроловка, Краснополье, Новицкое и на Первой Шахте города Партизанска.



Мероприятие организовано ООО «Росток» при финансовой поддержке департамента внутренней политики Приморского края. В автопробеге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более 30 человек. Следующий этап пробега пройдет осенью, и он будет конным, сообщают организаторы.



Надо отметить, что в мероприятиях, посвященных 100-летию окончания Гражданской войны активно принимают участие местные корейские организации.

Так клуб «Ариран» корейской диаспоры Партизанска провела для детей месячник «Сучанская долина – родина предков», в рамках которого состоялись экскурсии по памятным местам (улицы, памятники, названия которых связаны с Гражданской войной), конференции.

Алла Ли

В Аниве состоялся V международный фестиваль «В семье единой»

23 июля в г. Анива прошёл V международный фестиваль «В семье единой». Мероприятие было организовано региональной организацией «Сахалинские корейцы» совместно с комиссией по международным отношениям и вопросам общественной дипломатии Общественной палаты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плотить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всех национальностей, проживающих на Сахалине, — главная цель мероприятия.

В праздничном концерте Фестиваля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ансамбль барабанщиков «Ханыль», ансамбль национального танца корейского культурного центра «Ариран», творческие коллективы южно-сахалинского городского Дома культуры «Родина», г. Корсакова, с. Троицкое Анивского района, с вокальными номерами выступила представительница Сахалинской региональной общественной организации Землячество Бурятии «Байкал», а также народный ансамбль казачьей песни «Воля».

Перед концертом с приветствием к собравшимся обратилась мэр Анивы Светлана Швец. Она отметила, что участники фестиваля выполняют очень важную миссию: демонстрируют этнокультурное многообразие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знакомят зрителей с многогранностью культур и традиций, создают условия для укрепления дружбы и единства между представителями различных национальностей, проживающих на территори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Также зрителей приветствовали директор центра просвещения и культуры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И Бен Ель и президент Региональной общественной организации «Сахалинские корейцы» Пак Сун Ок (Оксана Владимировна).

Оксана Владимировна в своей речи объяснила, что впервые фестиваль прошел на Сахалине в 2017 году. По её словам, организаторы хотели познакомить жителей региона с национальной корейской культурой, но позже мероприятие стало международным.

Благодарственными письмами Общественной палаты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за помощь в организации фестиваля были награждены мэр г. Анива С. М. Швец и председатель Анивского представительства РОО «Сахалинские корейцы» И Ван До.

В рамках фестиваля «В семье единой» на городской площади работали различные интерактивные площадки. Фотовыставка, мастер-классы от мастеров декоративно-прикладного искусства, спортивно-игровая площадка, где у всех желающих была возможность попробовать себя в играх корейского народа и в соревнованиях по корейской национальной борьбе сирым, сообщает Общественная пала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Любовь и голуби» в Корее

23 июля 2022 года Ассоциацией Коре-сарам в Республике Корея совместно с Волонтерской группой «Ласточки» (г. Ансан) и танцевальным коллективом «Корё хальмони» (г. Инчхон) было проведено мероприятие по просмотру кинофильма «Любовь и голуби» в культурно-образовательном центре «Маырен», а также организован благотворительный обед в кафе «Корёин» в районе Хамбак Маыль (Саданджи).



17 человек — наших мам и пап, бабушек и дедушек из Ансана, Инчхона и Сеула — собрались вместе в Инчхоне, чтобы вспомнить свою молодость за просмотром старого доброго кино и пообщаться за обедом. Многие из них уже не работают и помогают нам ухаживать за детьми и вести домашнее хозяйство, но всем им не хватает общения и нашего внимания.

При поддержке ассоциации в прошлом году была создана группа в фейсбуке «Коре-сарам 60+ в Корее» (<https://www.facebook.com/groups/237450285032253>), где состоят уже более трех тысяч человек, общаются и делятся интересными, познавательными постами. Во время пандемии было сложно организовать живые встречи, и вот сейчас эта идея смогла быть реализована.

Источник: АКРК 대한고려인협회 Ассоциация Корё-сарам в Республике Корея

Студентам прививают навыки публичной дипломатии

Пусан, 24 июля – ИА РУСКОР
Министерство иностранных дел Южной Кореи и власти города Пусана создали команду студенческих послов университетов, получившую название «ООНовцы», и провели по этому случаю церемонию в пятницу.

По данным министерства, оно выбрало 50 южнокорейских и 50 иностранных студентов университетов в качестве своих послов, продвигающих город Пусан. Иностранные студенты представлены 22 странами, включая Китай, Вьетнам, Узбекистан и другие.

Студенческие послы будут проводить мероприятия, включая создание рекламного контента

для социальных сетей, для продвижения Пусана за рубежом, до конца этого года, говорится в сообщении министерства.

На церемонии в мэрии Пусана заместитель министра общественной дипломатии Ли Сан Ха выступил с речью о роли послов ООН, о цели Южной Кореи стать «глобальным ключевым государством» и о публичной дипломатии.

Ежегодная кампания была впервые начата в 2020 году, когда было выбрано 25 студенческих послов для продвижения города. В этом году министерство и Пусан расширили программу, включив в нее больше рекламных мероприятий, а также увеличили число послов до 100.

СТОМАТОЛОГИЧЕСКАЯ КЛИНИКА "РАДИКС"

Сделай свою улыбку красивой!!!



Тел.: 50-00-50; 43-31-31

Реклама

О Корее и корейцах

В РК частично ужесточены карантинные требования

С 25 июля в РК частично ужесточены карантинные требования. В частности, все прибывшие в страну из-за рубежа должны сдать ПЦР-тест в день прибытия, либо на следующий день. До получения отрицательного результата теста необходимо соблюдать самоизоляцию. До сих пор тест на коронавирус требовалось сдать в течение трёх суток после прибытия в страну. Ужесточение вызвано ростом числа ввозных случаев инфекции. Так, 20 июля их зафиксировано 429, что является самым высоким показателем с момента начала пандемии. Одновременно введены ограничения на посещение домов престарелых. Разрешается исключительно бесконтактное общение с пациентами. Сотрудники указанных учреждений, если они не получили четвертую дозу вакцины не позднее, чем три месяца назад, или не болели COVID-19 в течение последних 45 дней, должны сдавать ПЦР-тест еженедельно. С начала июля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ы 18 случаев группового заражения в домах престарелых, шесть – в центрах дневного пребывания, пять – в учреждениях для инвалидов и три – в психиатрических больницах.

Сеул заявил протест Токио по поводу притязаний на острова Токто

22 июля советник по связям с общественностью посольства Японии в Сеуле Мамото Хаяси был вызван в МИД РК. Исполняющий обязанности директора департамента Азиатско-Тихоокеанского региона МИД РК Со Мин Чжун от имени южнокорейско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а выразил японскому дипломату сожаление по поводу содержания «Белой книги по обороне» за 2022 год. Он заявил, что Япония в очередной раз выдвинула необоснованные притязания на исконно корейскую территорию - острова Токто в Восточном море. Ранее в тот же день министр обороны Японии Нобуо Киси представил содержание «Белой книги» кабинету министров. В ней острова Токто упомянуты как «спорные территории». Токио предъявляет притязания на южнокорейские территории в официальных документах Минобороны с 2005 года, что вызывает резкую реакцию официального Сеула. В этом году ситуацию усугубляет то, что документ был обнародован всего лишь через несколько дней после того, как министр иностранных дел РК Пак Чин совершил поездку в Токио, где провёл переговоры о нормализации двусторонних отношений. РК контролирует острова Токто с момента освобождения от колониального господства Японии в 1945 году.

Борьба с COVID-19 сосредоточится на четвертой прививке

Правительство РК решило сосредоточить дальнейшую борьбу с пандемией COVID-19 на четвертой прививке против коронавируса. Об этом сообщил министр административного управления и безопасности Ли Сан Мин, выступая 22 июля на совещании, посвящённом мерам реагирования на COVID-19. Он подчеркнул, что массовая вакцинация приобретает особую актуальность в условиях, когда ежедневное число новых случаев коронавируса приближается к 70 тысячам. Министр добавил, что будут созданы дополнительные больничные койки, продлено время работы центров тестирования на вирус, открыты дополнительные лечебные учреждения, увеличены поставки медикаментов. С 18 июля четвертая доза вакцины от COVID-19 рекомендована всем жителям страны в возрасте старше 50-ти лет, а также лицам старше 18-ти лет, имеющим хронические заболевания.

РК расширяет экспорт контентов

С 26 по 29 июля министерство культуры, спорта и туризма РК совместно с Корейским центром развития культурного контента проводят в Сингапуре выставку корейского контента (K-Content EXPO in Singapore-2022). Данное мероприятие проводится в разных странах уже седьмой год. Оно нацелено на оказание поддержки южнокорейским компаниям в выходе на мировой рынок. В выставке принимают участие 27 южнокорейских компаний, занятых в сфере культурных контентов, шесть начинающих компаний, 40 зарубежных предприятий, готовых приобрести южнокорейский контент. Выставка поможет диверсифицировать экспортные направления.

Участие мультикультурных семей в жизни страны расширяется

20 июля министерство по делам женщин и семьи РК объявило набор в состав шестого по счёту комитета по делам мультикультурных семей. Желающие могут подать заявку до 1 августа на сайте министерства. В состав комитета будут отобраны на конкурсной основе 20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мультикультурных семей, которые будут предлагать политику по защите своих интересов. В течение двух лет они будут заниматься мониторингом проектов, связанных с мультикультурными семьями, делиться мнениями и участвовать в различных мероприятиях. Представитель ведомства Ким Сук Ча заявила, что идеи членов комитета будут отражены в базовом плане работы с мультикультурными семьями, рассчитанном на период с 2023 по 2027 год.

(RKI)

В Южной Корее разрешат читать газеты и книги КНДР

Власти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РК) намерены отменить действовавший десятилетия для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ов запрет на чтение северокорейских газет, журналов, книг и просмотр телевидения КНДР. Соответствующий план предоставлен министерством объединения РК президенту страны. Сделано это несмотря на достаточно жесткий настрой в отношении Пхеньяна со стороны нынешнего консервативно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а Юга.

Как сообщили в администрации президента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22 июля президенту Юн Сок Ёлю министр объединения РК предоставил план действий ведомства в отношении политики, имеющей отношение к КНДР. Среди тех инициатив, которые будут реализованы в ближайшее время - отмена запрета для граждан РК на прямой доступ к содержанию северокорейских СМИ - газет, журналов, книг, интернет-ресурсов, телевидению и радио.

Напомним, что на настоящий момент гражданам Южной Кореи запрещено читать, слушать и смотреть подобные материалы, для этого требуется специальное разрешение. За нарушение полагается наказание вплоть до крупных штрафов и тюремных сроков. Получить доступ к интернет-ресурсам КНДР с территории Южной Кореи нельзя, их блокируют местные власти. Впрочем, обычно правоохранительные органы РК сквозь пальцы смотрели на то, что местные журналисты, эксперты, политики регулярно использовали VPN-сервисы для получения доступа к ресурсам Северной Кореи, если "читатели" не начинали открыто пропагандировать северокорейскую идеологию.

Министерство объединения РК пока не предоставило других деталей своей инициативы по отмене блокировки северокорейских ресурсов, сообщив лишь, что проводит дополнительные консультации и согласования с заинтересованными структурами и органами власти. В отношении причин данного шага было заявлено, что это сделано в целях снижения зависимости Южной

Кореи от иностранного новостного контента по КНДР, который часто искажается.

Кроме того, Сеул выразил надежду, что Пхеньян ответит взаимностью и упростит доступ для своих граждан к южнокорейским ресурсам. Последнее высказывание вызвало у экспертов скептические замечания, так как маловероятно, что КНДР ослабит свою информационную самоизоляцию.

Стоит отметить, что подобная инициатива министерства объединения РК оказалась весьма неожиданной. Пришедшая 10 мая этого года к власти новая администрация РК во главе с президентом Юн Сок Ёлем выступает с весьма сильных антисеверокорейских позиций и куда меньше настроено на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с Севером, чем это было при предыдущем лидере Юга Мун Чжэ Ине. Похоже, на Юге теперь признали, что даже каждый день читая партийную газету КНДР "Нодон Синмун", южнокорейцы вряд ли решат принять у себя в стране идеологию чучхе.

Правда, в другой сфере нынешнее правительство РК поступило в том стиле по отношению к КНДР, который от него ожидают. В аналогичном докладе президенту министр обороны РК сообщил о планах, которые предусматривают наращивание ударных сил, противоракетной обороны и иных вооружений, которые нацелены на нейтрализацию северокорейской угрозы. Кроме того, Южная Корея и США намерены в ближайшее время вернуться к практике крупномасштабных совместных маневров, которые были отменены или значительно сокращены после межкорейского и американо-северокорейских саммитов в 2018-2019 гг. Пхеньян по поводу учений уже ответил, предупредив, что возобновление маневров приведет к "беспрецедентной нестабильности в сфере безопасности".

Олег Кирьянов (Сеул)
(Российская газета)

Инвестиционный бум на рынке произведений искусства

Сеул, 23 июля – ИА РУСКОР

Согласно отчету службы управления искусством Кореи, опубликованному на прошлой неделе, объем арт-рынка Южной Кореи за первую половину 2022 года оценивается примерно в 532,9 миллиарда вон (410,2 миллиарда долларов США).

Шестимесячный показатель составил 58 процентов от годового объема арт-рынка 2021 года, который оценен в 915,7 миллиарда вон.

Шесть крупных арт-ярмарок, проведенных в первой половине года, показали значительный рост. Общий объем продаж достиг 142,9 миллиарда вон, что на 165,6 процента больше, чем в предыдущем году. Общее число посетителей также увеличилось на 72 процента и составило 366 000 человек.

В местных художественных галереях было заключено сделок на сумму около 245 миллиардов вон.

На 141 аукционе, проведенном 10 крупнейшими аукционными компаниями страны, было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о сделок с про-

изведениями искусства на сумму около 145 миллиардов вон. Эта цифра на 0,1 процента больше, чем в первой половине 2021 года.

«Статуя Венеры, уничтоженная сетями бесконечности» Яеи Кусамы (1998) была продана по самой высокой цене за 4,4 миллиарда вон на аукционе в первом полугодии. «Из точки» (1982) Ли У Фана и «Ателье» (1957) Ким Ван Ки были проданы за 1,7 миллиарда вон каждая.

Арт-рынок также расширился в другие области, такие как розничная торговля и мода. Рынок долевого владения — тип инвестиций, при котором клиенты разделяют право собственности на произведение искусства, — по оценкам, в первом полугодии достиг 31 миллиарда вон, что эквивалентно 56,9 процента от объема рынка произведений искусства с долевым владением в 2021 году.

По оценкам, общая сумма сделок с произведениями искусства в этом году достигнет 1 триллиона вон.

Группа BTS - посол World Expo-2030 в Пусане

Группа BTS назначена послом Всемирной универсальной выставки World Expo-2030 с целью продвижения кандидатуры города Пусана в качестве места её проведения. В церемонии, состоявшейся 19 июля в продюсерском агентстве HYBE,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премьер-министр РК Хан Док Су, президент Корейской торгово-промышленной палаты Чхве Тхэ Вон, мэр Пусана Пак Хён Чжун. Лидер BTS RM поблагодарил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траны за оказанную честь, добавив, что он и его коллеги приложат все усилия для того, чтобы выставка прошла именно в Пусане. Артисты приступят к работе в октябре, когда они станут участниками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концерта в Пусане. Премьер-министр Хан Док Су отметил, что важным фактором для проведения выставки является привлечение внимания к ней как южнокорейцев, так и жителей всего мира. Он выразил надежду на то, что участники группы BTS сыграют в этом ведущую роль.

KBS World

"Полигранд"

Партнер,
созданный для Вас!

Тел.: 42-49-54, 42-49-89

Реклама

Подпишись на газету "Сэ коре синмун"!

Только у нас самые свежие, эксклюзивные и достоверные новости и публикации из жизни корейского сообщества Сахалина, а также новости из Южной и Северной Кореи.

Стоимость подписки на 1 месяц 2022 г. — **96 руб. 92 коп.** Индекс газеты: **ПР575**

Газету можно выписать во всех отделениях связ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1300 сахалинских школьников отдохнут в новом патриотическом лагере «Авангард» в этом году

Военно-патриотические центры создаются во всех регионах страны по инициативе Президента Владимира Путина. На Сахалине для «Авангарда» выделят часть территории учебно-тренировочного центра «Восток».

— Первая смена стартует уже в августе. Очень важно обеспечить все условия для занятий и комфортного пребывания старшеклассников. У нас есть для этого обустроенная база, грамотные преподаватели и тренеры, увлеченные ребята. Поэтому работу необходимо развернуть максимально эффективно, — сказал губерна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На базе «Востока» для юных патриотов выделен жилой и учебный корпусы, предусмотрена открытая площадка с полосой препятствий. Ребята будут изучать основы строевой и тактической подготовки, первой медицинской помощи, ориентирование на местности, робототехнику и беспилотные летательные аппараты. В программе также — посещение музейно-мемориального комплекса «Победа» и исторического парка «Россия — моя история»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спортивные соревнования, творческие вечера, выезды на стрельбы.

— Смены «Авангарда» будут разной направленности. 15 августа ожидается заезд 180 ребят практически из всех районов Сахалина и Курил. На протяжении трех недель старшеклассники будут проходить начальную военную подготовку и готовиться к параду 3 сентября в честь окончания Второй мировой войны, — рассказал руководитель агентства по делам молодеж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Дмитрий Смекалов.

С 5 сентября военно-патриотический центр работает в круглогодичном режиме. Помимо тематических трехнедельных смен, будут проводиться короткие смены и учебные сборы продолжительностью пять дней. Планируется, что в следующем году такую подготовку в «Авангарде» пройдут 3300 старшеклассников.

В Долинском районе благоустроят поликлинику, приобретут оборудование для акушерского отделения и построят ФАП

Об этом стало известно во время встречи губернатора Валерия Лимаренко с жителями района. Здравоохранение традиционно стало одной из ключевых тем мероприятия.

Жительница Долинска Любовь Прокопюк поинтересовалась сроками благоустройства городской поликлиники. По поручению главы региона территорию учреждения приведут в порядок в течение трех месяцев.

— Сегодня был на объекте, увидел все недочеты. Конечно, в таком состоянии территорию оставлять нельзя. Поставил задачу в кратчайшие сроки провести благоустройство, — подчеркнул губерна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 Рабочие укладывают новый асфальт, в том числе — на автомобильной парковке. Предустановка гидроизоляции и дренажную систему — это позволит полностью устранить проблему плохого отвода воды, которая возникает во время дождей. Рядом со зданием появятся лавочки. В 2023 году планируется отремонтировать фасад поликлиники, — рассказал областной министр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Владимир Кузнецов.

Заведующая акушерским отделением Долинской ЦРБ рассказала об необходимости приобретения современного оборудования — аппарата УЗИ и фетального монитора. Техника появится в подразделении до первого октября. Также в ходе мероприятия стало известно о строительстве фельдшерско-акушерского пункта в Углезадовске. Объект будет возведен уже в этом году.

На встрече были подняты вопросы развития энергетической сферы. Так, жители Стародубского поинтересовались сроками газификации села и строительством новой современной котельной.

— Уже построен межпоселковый газопровод. Проектная документация готова. Она передана в «Газпром». В 2023 году компания начнет строить внутриселковые сети, — рассказал областной министр энергетики Михаил Гузенко.

— В следующем году на месте старой построим новую модульную газовую котельную, — добавил глава района Александр Тугарев.

Работник спортивной школы Долинска обратился с просьбой обустроить городской стадион — установить лавочки и раздевалки. Соответствующий проект уже подготовлен. В ближайшие два года на популярном среди местных жителей спортивном объекте появятся трибуны, система освещения, беговая дорожка и оборудование для воркаута.

Житель Стародубского Юрий Печкин рассказал о чetyрех участках дороги, на которых скапливается вода.

— Эти участки находятся возле магазинов, ларьков, на остановке. Хотелось бы узнать, какие меры будут приняты для скорейшего устранения этой проблемы? — спросил житель села.

— В самое ближайшее время мы проведем специальное совещание по этому вопросу. Недочеты устраним до зимы, — заверил областной министр транспорта и дорожного хозяйства Валерий Спиченко.

Во время мероприятия за помощью к губернатору обратились сразу несколько малообеспеченных семей. Было решено включить их в специальную программу, в рамках которой специалисты областного министерства социальной защиты помогают сахалинцам выбраться из сложной жизненной ситуации и улучшить материальное положение. Островитянам оказывают поддержку в открытии собственного дела, получении образования, трудоустройстве и решении юридических вопросов.

В ходе встречи обсуждались вопросы ЖКХ, социальной защиты, ценообразования, лекарственного обеспечения и дорожного хозяйства. Прозвучало более 30 вопросов. Все они взяты в работу. По каждому поручению установлены сроки и исполнители.

Отметим, на мероприятии жителям Долинского района были торжественно вручены памятные знаки, посвященные 75-летию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Награду получили индивидуальный предприниматель Денис Гага, директор муниципальной спортивной школы Андрей Гринчак, начальник пожарной части №25 Углезадовска Виктор Анисимов, учитель истории первой школы Долинска Ольга Мартынова и участник боевых действий на острове Даманский Александр Хайлов.

Кроме того, почетными грамотами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награждены директор ООО «Мираж» Дмитрий Климович, директор «Дома детского творчества села Стародубское» Ирина Продан, тракторист-машинист СПК «Соколовский» Виктор Соловьев, а также коллектив детского сада «Чебурашка».

Свыше 350 юных сахалинцев уже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в летнем этапе региональной программы детского социального туризма

В этом году по инициативе губернатора Валерия Лимаренко возможности проекта были расширены. Для ребят из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и районов области на бесплатной основе стали доступны водные развлечения в самом большом на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аквапарке «Аква Сити» и участие в интеллектуальной игре «Мозгобойня». Кроме того, дети традиционно могут посетить музей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Планируется, что в 2022-м участниками познавательных и оздоровительных мероприятий в общей сложности станут более 16 тысяч сахалинских школьников.

— В этом году по поручению Валерия Лимаренко было значительно увеличено финансирование важной социальной программы. Это позволяет нам охватить и наиболее отдаленные районы области. Принципиально, что такие поездки для школьников бесплатные, — поделилась первый заместитель министра туризм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Наталья Пахолова. — Наш регион первый в стране реализует детский социальный проект на таком уровне. Ну и самое главное, что от ребят получаем восторженные отзывы.

Всего с начала года экскурсии посетили уже более 10 тысяч школьников. В летнем этапе программы участие принимают школьники из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и отдаленных муниципалитетов, находящиеся в пришкольных лагерях дневного отдыха и оздоровительных лагерях. Программа выстроена так, что дети имеют возможность посетить островную столицу, побывать в одном из музеев на обучающем квесте, весело провести время в аквапарке и стать участником интеллектуальной игры «Мозгобойня». Обязательной составляющей является питание. Таким образом, ребята получают настоящее приключение одного дня, включающее в себя образовательный, развлекательный и оздоровительный блоки.

— В музее было очень интересно. Здорово, что мы не просто ходили, а соревновались командами. В аквапарке побывал в первый раз, но уже хочу вернуться сюда снова с родителями. Уверен, что им понравится, — поделился отдыхающий из оздоровительного центра «Лесное озеро» Артемий Романов.

Напомним, что программа детского социального туризма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реализуется за счет бюджета. В этом году на нее выделено уже свыше 60 млн рублей. Для участия в программе родителям необходимо оформить ребенка Карту сахалинца или электронный социальный сертификат на сайте министерства социальной защиты.

Проект осуществляется по инициативе губернатора и правительства области. Координирует его реализацию министерство туризм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ри участии региональных министерств культуры, образования и социальной защиты.

55 семей в Долинске переезжают из аварийного жилья в комфортные квартиры

Во время рабочей поездки в Долинский район губерна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встретился с жителями новостройки на улице Комсомольская, 42. Квартиры люди бесплатно получили по областной программе расселения аварийного жилфонда.

— Мне радостно видеть сегодня счастливые лица новоселов. История этого дома разворачивалась на наших глазах. Раньше на этом месте было аварийное здание, его снесли, а теперь здесь выросла красивая новостройка. Мы реализуем большую программу по переселению сахалинцев и курильчан из аварийного жилья. Для этого существенно нарастили объемы жилищного строительства. Сегодня строим больше одного квадратного метра на человека в год. Это один из лучших показателей в России. И такие темпы продолжим поддерживать, пока комфортное жилье не обретут все жители региона, — сказал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Новоселов поздравила также депутат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ной Думы Наталья Коршунова.

— Вы сегодня войдете в новые квартиры — светлые, красивые, теплые. Вы долго этого ждали, и благодаря тому, что правительство области с опережением реализует программу расселения, вы переезжаете в новый уютный дом. Желаю счастья, благополучия и — самое главное — здоровья, — обратилась депутат к новоселам.

Ключи жильцам вручил министр стро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Алексей Колеватых. В пятиэтажке 55 квартир: 10 однокомнатных и 45 двухкомнатных. По проекту предусмотрены отдельные жилые комнаты и санузел, кухня, прихо-

жая, остекленная лоджия. Все квартиры сделаны «под ключ» — с обоями, натяжными потолками, линолеумом, кафелем в ванной. Установлены электроводонагреватели и электроплиты на кухне. Во дворе обустроена детская площадка.

Комфортное жилье в монолитном доме предоставили переселенцам из непригодных для проживания домов: Пионерская 10, Пионерская 12, Шевченко 3. По традиции, заведенной губернатором, будущие жильцы осмотрели свои квартиры, высказали свои замечания и пожелания, и подрядчик учел их перед сдачей дома.

Семья Саутнер получила комфортную двухкомнатную квартиру. Алексей работает водителем Долинского пожарного отряда, Екатерина — старший специалист в Пенсионном фонде. Старшая дочь Людмила перешла в выпускной класс, сын Максим готовится стать первоклассником.

— Нам все очень нравится. Качеством квартиры довольны. Мы сами следили, как ведутся работы на каждом этапе. Сначала не верили, что переедем в этот дом, но очень надеялись. Теперь ключи у нас в руках, так что все происходит на самом деле. Уже мысленно расставляем мебель. У дочери будет своя комната, она уже взрослая. А мы разместимся в зале, — поделилась Екатерина.

В этом году планируется сдать еще более 120 квартир в Долинске, Стародубском и Углезадовске. Определены перспективные участки для жилищного строительства — на территории бывшего танкоремонтного завода и в центральной части города, где будут сносить аварийные дома.

Отметим,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досрочно завершила программу расселения жилфонда, признанного аварийным до 1 января 2017 года. Это позволило региону претендовать на дополнительную федеральную поддержку по линии Фонда содействия реформированию ЖКХ. С привлечением этих средств будут улучшены жилищные условия тех сахалинцев и курильчан, чьи дома были признаны аварийными уже после 1 января 2017 года.

В 2021 году новоселье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отметили почти 4 тысячи человек. В 2022 году планируется переезд более 5 тысяч сахалинцев и курильчан. Всего в ближайшую пятилетку ключи от квартир получат около 30 тысяч жителей региона.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встал на защиту общеобразовательной школы в Никольском

По инициативе губернатора было отменено решение, принятое ранее администрацией Углегорского района. С просьбой не закрывать образовательное учреждение к Валерию Лимаренко обратились жители села и работники школы.

— По поручению главы региона я провела собрание с жителями села, на котором мы обсудили возможные варианты обучения юных островитян. Пришли к выводу, что школу обязательно нужно сохранить. Для этого есть сразу несколько весомых причин. Так, в образовательном учреждении занимаются дети с ограниченными возможностями здоровья — родители боятся, что ребятам будет непросто адаптироваться к новым условиям. Кроме того, в учреждении имеется дошкольная группа, без которой жителям села будет очень тяжело. Также опасность вызывает нерегулярность транспортного сообщения, — подчеркнула областной министр образования Анастасия Киктева.

Отметим, в сельской школе обучаются 40 ребят из Никольского, Ольховки и Углегорска. В образовательном учреждении трудятся 9 педагогов.

Напомним, ранее администрация Углегорского района разместила постановление о ликвидации общеобразовательной школы в Никольском. Родителям обучающихся предлагалось выбрать между школами Углегорска и Краснополя.

Бизнес и власть на Сахалине обсудят вопросы энергосбережения

В четверг, 28 июля, в региональном правительстве состоится форум «Реализация комплексного энергосбережения на территори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Главной его целью — привлечь энергосервисные компании к работе на Сахалине и Курилах и организовать их взаимодействие с бюджетными, ресурсоснабжающими и другими организациями. Форум станет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ой бизнес-площадкой, где одновременно соберутся представители энергетических компаний и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власти.

— Снижение энергоёмкости российской экономики на сегодня является важной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задачей. Реализуемые проекты и мероприятия в области энергосбережения позволят повысить энергетическую эффективность. В частности, принятые меры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 это вклад в сокращение эмиссии выбросов парниковых газов, — отметил заместитель председателя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Олег Попов.

— Наша задача — реализация комплексной программы энергосбережения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которая направлена на снижение потребления энергоресурсов. Мы хотим представить для потенциальных инвесторов энергосервисных компаний проекты, в которые они могут вложить средства в сфере ЖКХ и энергетики, — рассказала министр жилищно-коммунального хозяй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Наталия Куприна.

На форуме будут организованы выступления специалистов по вопросам о нормативной правовой базе, лучших практиках в области энергосбережения и повышения энергетической эффективности, возможностях и преимуществах работы в рамках энергосервисных компаний. Трансляция будет доступна в сети Интернет.

(По материалам пресс-службы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사할린 동포의 삶, 연극으로 보다

극단 자유바다 '사할린의 바다' 29~31일 기장 안데르센극장

사할린 동포의 삶, 그들의 이야기가 연극 무대에 오른다. 극단 자유바다는 '사할린의 바다'를 29일부터 부산시 기장군 장안읍 안데르센극장에서 공연한다. 연극 '사할린의 바다'는 일제강점기에 강제징용된 사할린 동포의 인생과 애환을 이야기하는 작품이다. 사할린 동포 영주귀국자들의 구술과 역사적 자료를 바탕으로 창작했다.

1938년 일본은 대륙 침략과 태평양전쟁 준비를 위해 국가총동원령을 선포한다. 일본은 조선인 7만여 명을 강제 동원해 사할린의 탄광, 비행장, 도로, 철도 등 군수시설 건설 현장에 투입한다. 패망한 일본은 이들을 사할린에 남겨두고 떠났고, 사할린 한인들은 오랫동안 역사의 기억에서 잊힌 존재로 살았다.

'사할린의 바다'는 정경환 연출가가 직접 극본을 썼다. 기장 정관에 살고 있는 강제징용 조선인 2세 '고장석'의 기억을 통해 러시아 동쪽 끝단 사할린섬에 발이 묶여 수십 년간 고향의 하늘·바다·바람을 그리워한 이들의 이야기를 전달한다. 정 연출가는 "88올림픽 이후 소련과의 수교로 이분들의 후손이 고국으로 돌아왔고, 기장 정관에 그분들이 살고 계시다"며 "이 작품이 돌아오지 못한 사할린 1세대와 돌아온 분들에게 작은 위안과 위로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연극 '사할린의 바다'는 29일부터 31일까지 오후 5시에 공연한다. 공연은 전석 초대로 진행되며, 안데르센극장으로 사전 예약하면 된다.

(부산일보)



[우리말로 깨닫다]

3개월 전의 나

나는 누구인가? 나란 무엇인가? 나의 변하지 않는 특성은 무엇인가? 자신의 정체성을 찾으려는 노력은 평생을 다해도 모자라는 진리의 길이라는 느낌입니다. 성자라고 하는 사람은 모두 이러한 질문을 던졌던 사람일 겁니다. 어릴 때부터 나를 만들어온 나의 역사가 나이고 나의 정체성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내 정체성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 조현용 (경희대 교수, 한국어교육 전공)

어떤 일본 스님의 책을 번역하다가 인간의 세포는 3개월이면 모두 바뀐다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자신(自身)에 대한 집착을 이야기하는 부분이었는데 우리의 몸조차 '자신'이라고 하기에는 늘 바뀐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스스로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마음을 버리라'는 장 제목이 제 마음을 끌었습니다. 저는 스스로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마음이야말로 세상을 사랑하는 시작이라고 여겨왔기 때문에 묘한 제목이라는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아마도 이 말은 자신을 소중하게 생각한 나머지 변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폐단을 이야기하는 게 아닐까 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3개월 전의 내가 지금의 나와 완전히 다르다는 점에서 늘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변하고 있는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변화의 방향도 고민해 봐야 할 겁니다. 좋은 쪽으로 변화해야 하겠지요. 기껏 바뀌었는데 그게 더 나쁜 방향이라면 문제일 테니까요.

우리는 자신이 변하지 않는 존재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렇기에 과거의 나에 매달려있는 것입니다. 과거에서 지나온 시간만큼, 현재에서 흘러가는 시간만큼 나는 변화한다는 사실을 잊는 겁니다. 불교에서는 이런 변화를 제행무상(諸行無常)이라고 합니다. 모든 것은 늘 변한다는 의미입니다. 변화함이 진리임에도 과거의 문제에 얽매어 사는 사람은 고통 속에서 자신을 망가뜨리기도 합니다. 이미 지나간 과거는 바꿀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당연한 이야기가 아닌가 하고 생각될 겁니다.

저는 과거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불교의 성자 푼니카를 떠올립니다. 푼니카는 고아였고 하녀였습니다. 세상에 불만이 가득하여 늘 불친절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과거의 내가 변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지 말라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합니다. 늘 친절한 모습으로 사람들을 대하자 푼니카의 현재가 바뀌고 미래가 바뀝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성자라는 칭송을 받습니다. 사람은 바뀝니다. 현재의 내 모습에 따라 좋게 바뀝니다.

사람들은 자라면서 스스로가 새로워질 수 있다는 생각을 잊습니다. 어린 시절이나 청춘만이 젊고 빛나는 시절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앞으로 멋지게 나이 들어갈 생각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새로워지는 게 아니라 잘 마무리한다고 말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며칠 전 숲길을 걷다가 문득 놀라운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봄에 새싹이 돋아 싹(新綠)이 되고, 여름에는 울창하고, 가을에는 하나 둘씩 낙엽이 될 거라 생각했는데 한여름에도 새싹이 돋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싹이었습니다. 꽃보다 더 빛나는 이파리였습니다.

3개월 전의 나는 이미 없습니다. 아니 어쩌면 방금 전의 나도 없어지고 있을 겁니다. 모든 것은 늘 변화하고 있습니다. 과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붙잡고 지내는 내 과거의 기억만이 있을 뿐입니다. 추억은 추억으로 아름답겠지만 그래서 나를 바꾸지 못한다면 답답한 일입니다. 오늘도 나는 바뀝니다. 이왕이면 좋게 바뀌기를 소망합니다. 여름에 피어난 새 잎처럼 말입니다.

(출처: 재외동포신문)

전 세계 디아스포라 한글 문학 조명하는 학술회의 열린다

한국문학번역원 · 국제한인문학회 공동 개최
'2022 디아스포라 한글 문학과 인문지리' 주제
7월 29일 한국문학번역원 대강당에서 진행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문학번역원(원장 곽효환)은 전 세계 디아스포라 한글 문학을 조명하는 학술회의 '2022 디아스포라 한글 문학과 인문지리'를 오는 7월 29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소재 한국문학번역원 4층 대강당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제한인학회와 공동으로 개최하는 이번 학술회의는 최근 다양한 장르에서 한인 문학 및 한글 문학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는 추세를 반영하고 나아가 한글 글쓰기를 활성화하기 위한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된다.

학술회의에서는 디아스포라 한인 문학의 정체성과 미래를 진단하는 총론 발표에 이어 권역별 문학연구자들이 전 세계 각지의 디아스포라 한글 문학을 총체적으로 재조명할 예정이다.

오전 총론에서는 '디아스포라 한인 문학의 정체성과 미래'(이형권)와 '디아스포라 한글 문학장과 문예지의 역할'(이승하)에 대한 발표가 이뤄진다.

오후에는 지역론 세션과 작가론·작품론 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지역론 세션에서는 미주, 중국, 중앙아시아, 유럽, 일본 등 권역

별 디아스포라 문학을 조망하고, 작가론·작품론 세션에서는 디아스포라 문학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조명희, 고정희, 심연수 등의 작가론을 다룬다.

한국문학번역원은 "이번 학술회의를 통해 디아스포라 한글, 한인 문학에 대해 총체적으로 조명하고 오늘날 범지구적인 디아스포라 현상에 따른 디아스포라 한글 문학의 방향성을 살펴보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문학번역원은 이번 학술회의를 토대로 올해 11월에 전 세계 한글 문학 작가와 독자를 위한 《디아스포라 웹진: 너머》를 창간할 계획이다. 《디아스포라 웹진: 너머》는 미주, 유럽, 러시아 및 중앙아시아, 중국, 일본 등 세계 각국에 산재해 있는 디아스포라 한글 문학의 정전을 소개할 뿐만 아니라, 동시대 다양한 한인 창작자 및 한글로 글을 쓰는 외국인들의 문학 작품도 고루 수록할 예정이다. 디아스포라 문학을 처음 접하는 일반 독자도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K-pop과 K-드라마 등 K-문화 리뷰와 현장 탐방 등의 코너도 준비하고 있다.

(재외동포신문)

인하대학교 김영순 교수 저서, 2022 대한민국학술원 '우수학술도서' 선정

인하대학교(총장 조명우)는 다문화융합연구소장 김영순 사회교육과 교수가 공동 집필한 저서 '중앙아시아 출신 유학생의 상호문화소통과 문화적응'이 대한민국학술원에서 발표한 사회과학 부문 우수학술도서로 선정됐다고 27일 밝혔다.

이 책은 다문화융합연구소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글로벌 시대 에스노그래피를 활용한 다문화가정 구성원의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및 지속 가능한 다문화사회를 위한 사회통합에 관한 연구'라는 대주제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했던 인문사회 토대연구사업의 결과물이다. 해당 사업을 통해 출간한 사회통합총서의 마지막 11번째 총서이기도 하다.

책에서는 중앙아시아 출신 현지인 및 고려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문화적응 과정과 상호문화소통 경험에 대해 심층면담을 수행한 결과를 담고 있다. 학문을 익히기 위해 한국으로 온 유학생의 대학생활을 둘러싼 문화적응과 상호문화소통 관련 연구를 토대로 한 연구서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주민 중에서도 소수자인 외국인 유학생의 대학생활 현실과 문화적응 양상, 전망 등에 대해 더욱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다.

이 책의 공동 저자인 갈라노바 딜노자(Kalanova Dilnoza)와 아지조바 피루자(Azizova Firuza) 역시 중앙아시아 출신 유학생으로 본교 다문화교육학과에서 박사과정을 수료하고 학위를 취득한 후 각각 호남대 국제교육원 교수와 전문 연구자로서 길을 걷고 있다.

대한민국학술원에서는 2002년부터 인문학, 사회과학, 한국학, 자연과학 분야의 기초학문 연구 및 저술활동 활성화를 위해 매년 300종 내외의 우수 저서를 선정하고 전국의 대학과 공공도서관에 보급하고 있다.

한편, 김영순 교수가 발간한 저서인 사회통합총서 8권 '디아스포라와 노스텔지아: 사할린 한인의 삶과 이야기'(북코리아, 2021)와 사회통합총서 6권 '이주여성의 상호문화소통과 정체성 협상'(북코리아, 2020)도 세종도서 학술부문 우수학술도서로 선정된 바 있다.



[한국강사신문]

이 모 저 모

(2면의 계속)

"성공한 엄마" 프로젝트의 목표는 14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사할린 여성들을 돕는데 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사할린 주민들은 현대 노동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새로운 직업을 배우며 회계, 인사, 사무, 교육, 사회사업 등의 분야에서 디지털 기술 도구 및 기술 활용과 관련된 지식을 넓힐 수 있도록 돕는다. 사할린 지역 거주자는 무료로 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거의 모든 수업이 원격으로 진행된다.

"성공한 엄마" 프로젝트는 2018년부터 사할린 주에서 시행되고 있다. 그 동안, 800여명의 섬지역 여성들이 이 프로그램에 참가했다.

2019년부터 2022년까지 700여 명의 사할린 여성들이 사할린 주 일반 과학 도서관 전문가들이 개발한 전문 교육 프로그램과정을 수료하고 정보와 디지털 기술에 대한 자질을 향상시켰다. 프로젝트 참여자 약 100명은 다양한 기업 및 단체의 마케팅 활동 분야뿐만 아니라 광고 서비스 제공, 미디어 콘텐츠 홍보 등 여러 분야에서 새로운 실무지식을 배웠다.

올해 2월부터 사할린 지역에서 여러 교육 플랫폼의 작업이 한번에 구성된 프레임 워크내에서 '성공한 엄마' 프로젝트의 5단계 "성공한 엄마의 디지털", "미디어 정보 역량 학교", "직업교육대학", "모성 및 지적·창의적 개발학교", "전자법률시

스템 교육센터"가 구현되었다.

이 교육은 대면 및 비대면으로 진행되고 모든 강의 및 워크숍에 참석할 수 없는 참가자는 편리한 시간에 모든 교육 모듈을 마스터할 수 있도록 돕는다.

섬 지역 여성들에 따르면, "성공한 엄마"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것은 그들의 삶의 질을 변화시키고 추가 교육을 받는 것이 간단하고 저렴해졌으며, 이러한 형태의 교육을 통해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다고 한다

프로그램 «Статус:Онлайн» помогает сахалинским мамам становиться успешными

На базе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ной универсальной научной библиотеки действует проект «Успешная мама». Он направлен на повышение конкурентоспособности женщин, воспитывающих детей, на рынке труда, на расширение их компетенций. Проект реализуется в рамках благотворительной программы «Статус: Онлайн».

Цель проекта «Успешная мама» — помощь сахалинским женщинам, воспитывающим детей в возрасте до 14 лет. Данная программа позволяет сахалинкам стать конкурентоспособными на современном рынке труда, освоить новую профессию, повысить квалификацию, расширить знания, связанные с использованием инструментов цифровых технологий, и умения в таких областях, как бухгалтерский учет, менеджмент по персоналу, делопроизводство, педагогика и социальная работа. Обучение доступно жительницам островного региона бесплатно, практически все занятия про-

ходят удаленно.

На территори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роект «Успешная мама» реализуется с 2018 года. За это время свыше 800 островитянок стали участницами программы.

В период с 2019 по 2022 года более 700 сахалинок освоили профильные образовательные программы, разработанные специалистам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ной универсальной научной библиотеки, а также повысили свои информационные и цифровые умения. Около сотни участниц проекта получили новые практические знания в разных областях — оказание рекламных услуг, продвижение медиаконтента, а также в области осуществления маркетингов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различных предприятий и организаций.

Начиная с февраля текущего года, в островном регионе реализуется 5-й этап проекта «Успешная мама», в рамках которого организована работа сразу нескольких образовательных площадок: «Школа цифровых и медийно-информационных компетенций успешной мамы»; «Школа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ого образования»; «Школа материнства и интеллектуально-творческого развития»; «Центр обучения работе с электронными правовыми системами».

Обучение организовали как дистанционно, так и в очном формате. Это помогает участницам, которые не имеют возможности посещать все лекции и практикумы, освоить все учебные модули в удобное для них время.

Участие в проекте «Успешная мама», по мнению самих жительниц островного региона, меняет их жизнь в лучшую сторону: получение дополнительного образования стало для них простым и доступным, такой формат обучения позволяет приобрести новые знания и навыки. **(사할린주 언론기관 자료에서)**

Реклама

SAKH.COM • БИЛЕТЫ

КИНО

ТЕАТР

Ваш портал в мир развлечений!

Вы можете купить билеты

на сайте
bilet.sakh.com

в приложении
билет.sakh.com

<p>Редакция не несет ответственности за содержание объявлений и рекламных материалов. Рукописи не рецензируются и не возвращаются. Мнение редакции не всегда совпадает с мнением авторов.</p>				<p>광고의 내용에 대해서 신문사가 책임을 지지 않음.</p>	
<p>Издатель: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p> <p>Гл. редактор Бя В.И. с.з. (주필) 배 워토리야</p>	<p>Учредители газеты: автономная некоммерческая организация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p>	<p>Адрес издателя и редакции: 693020 г.Южно-Сахалинск, ул. Чехова, 37 Телефон/факс: 43-59-80, 43-72-94, 43-67-85 E-mail: skr@sakhalin.ru http://cafe.naver.com/sekoreasinmun.</p>	<p>Отпечатано в ОАО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ная типография», ул. Дзержинского, 34 Время подписания в печать: По графику - четверг 16-00 Фактически - четверг 23-00</p>	<p>Издаётся с 1 июня 1949 года. Выходит по пятницам 50 раз в год. Индекс ПР575 Тираж 1100 экз.</p>	<p>Газета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а Управлением Федеральной службы по надзору в сфере связи, информацио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и массовых коммуникаций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видетельство о регистрации СМИ ПИ № ТУ65-096 от 22 сентября 2011 г.</p>